##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대안공간 기획자 1세대인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와 진행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 미술사 새로 쓸 '어젠다' 설정 중요"

### '헬로우 아트' 기획전 참여 … 백남준 'TV 부처' 등 전시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막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념 전시 '헬로우 아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고(故) 백남준(1932~2006) 화백의 'TV 부처'다. 부처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자신의 영상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내용의 이 작품은 백 화백의 대표작 중 하나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 작품이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될 수 있었던 것은 'TV 부처'를 소장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관장 서진석)의 도움 때문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21세기 현대미술의 주류로 떠오른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백남준아트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남준아트센터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된 광주에서 비디오아트의 개념을 만든 백 화백의 예술 세계를 다양한 형태로 알릴 계획이다.

최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난 백남준아트센터 서진석(48) 관장은 "광주가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관장은 '어젠다(agenda) 설정'을 강조했다.

"건물 하나 짓는다고 그게 미술사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아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도시 환경 재생, 민주주의적 소통, 생산의 민주화 등 다양한 것들이 어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젠다가 설정되면 전문가, 비전문가 그룹의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예요. 그게 기반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서 관장은 광주가 미디어아트로 현대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쓸수 있다고 했다. 인상주의 등 새로운 화풍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다.

"광주가 21세기를 선도하는 담론을 만들고, 담론을 중심으로 광주가 모이고, 한국이, 아시아가 모이면 그게 나중에는 미술사에서 중요한 움직임으로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백남준아트센터도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취임한 서 관장의 임명은 예상 밖의 일이어서 미술계에 큰 화제가 됐다. '대안공간 기획자 1세대'가 공공미술관 관장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서 관장은 90년대 후반 국내 대안공간의 효시로 꼽히는 루프를 세웠고, 다양한 기획전과 국제 교류를 통해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왔다.

"그동안 제가 주로 해왔던 것이 글로컬(Glocal) 프로젝트입니다. 해외 전시도 많았고, 미디어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이 해왔어요. 그 중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디지털 테크놀러지 발달과 사회, 현대미술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제가 그동안 구상해왔던 다양한 것들을 더 크게 확장하고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미술계에서는 백 화백의 작품 보관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대표적으로 TV모니터 등 백 화백 작품의 주를 이루는 장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망가지고 있어서다.

"주옥같은 역사적 작품들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어떻게 해야하느냐의 문제죠. 보존이냐, 복원이냐 등을 놓고 세계 각국 미디어아트 기관들과 협의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남준 작품에 관한 글로컬 매뉴얼을 만들 계획입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 긴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겁니다."

내년은 백 화백의 10주기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려줄 수는 없어요. 비밀입니다. 하하. 다만 글로컬 네트워크형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국내·외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참여하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백남준 선생의 작업세계를 중심으로요."

한편 오는 8월16일까지 열리는 '헬로우 아트'전에는 새로운 현대미술을 창안한 백남준 화백의 오마쥬를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이남 등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과 함께 가수 조영남, 배우 하정우의 그림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13-7100.

/글·사진=김경인기자 kki@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미륵사지 등 익산·부여·공주 8곳

### 한국 12번째…체계적 관리 기대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사진은 익산 미륵사지 전경과 마륵사지석탑 금동향로(작은 사진). 〈광주일보 자료사진〉

'백제 천년의 미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전북 익산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등 익산·공주·부여의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 8군데를 한데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Baekje Hisoric Areas)가 한국으로서는 12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본 월드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9차 회의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된 곳은 공주의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2곳, 부여의 관북리 유적·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군, 정림사지와 부여 나성의 4곳이다.

또 익산의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2곳을 합친 8곳이다.

이로써 한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의 3건이 한꺼번에 처음으로 등재된 이래 창덕궁과 수원화성(이상 1997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이상 2000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년), 조선왕릉(2009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년), 남한산성(2014년) 등 12건에 이르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또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역사유적지구, 중국의 동북지방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합치면 한민족 관련 세계유산은 15건을 헤아리게 됐다.

반면, 숙제도 남았다. 세계유산위는 이들 유적에 대해 전반적인 관광관리 전략과 유산별 방문객 관리계획을 완성할 것을 요구했다. 공주 송산리 고분과 부여 능산리 고분군의 고분벽화와 내부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충남도·전북도 등의 관련 지자체는 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더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계획을 짜기로 했다.

/김경인기자 kki@·연합뉴스

# 나주 혁신도시에 '직장인 오케스트라' 뜬다

### 15일까지 단원 모집

### 악기 지참·무료강습

한국전력 등이 자리한 나주혁신도시에 직장인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진다.

나주빛가람 직장인오케스트라가 신입단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문화예술재단의 '2015 생활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지원을 받아 나주시에 거주하는 직장인과 주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명 규모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는 우선 바이올린과 첼로 등 현악기 위주로 구성되며 관악과 타악기 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주자 유건우〈사진〉씨가 총괄 디렉터를 맡아 지휘를 담당한다. 독일 쾰른 음대, 불가리아 소피아 음악원, 캐나다 몬트리올 콩코디아 음대 등에서 수학한 유씨는 광주 네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장을 역임했다.

전남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중앙대 등에 출강중인 김정아, 전남대 강사를 역임한 김용석, 광주시향 첼리스트 이후성 씨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습은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매주 한차례 기초 음악 이론, 개인 실기 지도, 앙상블 연습 과정 등을 거쳐 클래식, 뮤지컬, 영화음악 등 다양한 작품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강사·단원들이 함께 소규모 음악회도 연다. 악기를 지참해야 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강습은 혁신 도시내 공공 기관 강당에서 열린다. 접수 마감은 오는 15일이다. 문의 010-3114-57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다형기념사업회 '전국학생문예공모' 입선 작품집 출간

다형 김현승기념사업회(회장 손광은)가 주최한 2015년전국학생문예공모 입선 작품집이 나왔다.

다형 김현승 시인의 시정신과 현대문학에 남긴 큰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서 5월에 걸쳐 열린 공모전에는 전국 중·고 282개교에서 10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접수됐다.

중학교 운문 대상에는 전대산(목포 덕인중) 군의 '벚꽃 지는 날', 산문 대상에는 박재언(대구 월서중) 군의 '할머니, 아 할머니'가 수상했다.

고등학교 운문 대상은 신예은(대전 대덕고) 양의 '그림자 속에 기린이 산다', 산문 대상은 이지민(고양예고) 양의 '여행'이 차지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수령 40~50년생 조림
50만주(현재 묘목 : 주당 3000원)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3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 ·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흑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산마을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 (조정가)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륵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대지 1,350㎡ 매 9억4천만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미화 방수 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